



2017년에 북클럽을 시작하면서 선택한 책은 존 스토틀의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답변>이었다. 80년대에 접한 책이었지만 그동안 4쇄 증보를 거치며 제법 두꺼워졌고 복잡한 사회문제들이 추가되었다. 영국의 상황에서 씌여진 책이라서 미국과 한국 문화에 익숙한 독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영국과 유럽의 예화와 사건들이 지적자극을 주기에 충분했으며, 이슈마다 곁들여진 성경적인 설명들이 사회문제를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도록 도와주었다.

다만,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피상적으로 짧은 글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곳곳에 있어서 아쉬움을 주기도 했다. 예를 들면 <인권>을 다루는 장에서는 생명권, 존엄권 등 기본적인 사법적 인권을 다루면서도 동시에 여성인권, 아동인권, 장애인 인권까지 확대하는 바람에 정작 기본인권에 대해 다루어야 할 문제는 다소 얇게 짚고 넘어가는 모습이 아쉬웠다. 만약 각 문제를 제대로 다 다루려면 책의 분량은 두배는 더 두꺼워져야 했을것이다. 그러나 교회모임에서 다루는 정도로서는, 또 많은 이슈들을 일괄하여 소개하는 정도로서는 좋은 입문서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매주일 예배후에 한시간씩 모였다. 열두명에서 열네명이 모였는데, 처음에는 30-40대 장년들이 중심이 된 북클럽인지라 다소 책을 읽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도 있었고, 사회문제들에 대해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진 분들도 있었다. 그러나 막상 책을 읽고 토의가 계속 되면서 책에서 다루는 문제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고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고 직면하는 문제들임을 알게 되자, 토의는 더욱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게 되었다. 구성원 각자 생각하는 방식과 가치관이 조금씩 같으면서도 다른 것을 확인하여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도 또하나의 수확이었다. 이렇게 해서 오는 4월 말까지 성공적으로 상반기 독서모임을 마치고, 6월부터 두번째 책을 시작할 때는 더욱 큰 기대와 열망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김범수 목사